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WSJ: 올가을 금리 인상 촉발 요인
- CNBC: 6월 도매 물가 “예상보다 적게 상승했다”

[서부 항만]

- CNBC: 캐나다 서부 항만 파업 끝났지만, 공급망 회복에는 몇 주 걸릴 것

[뉴욕 소식]

- NYT: 뉴욕시 “공공 주택 수리에 800억 불 필요하다”

[부동산]

- CNN Business: 모기지 금리 상승... 7%에 근접

[글로벌 경제]

- CNBC: 전략가 David Roche “글로벌 경기 침체 피할 것”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CNBC: 하이브리드 근무 새로운 표준 되다
- WSJ: ChatGPT, 연방거래위원회 조사 받다
- Bloomberg: Tesla “한국서 중국산 모델 Y 4만 4천 불에 판매 시작”
- CNBC: SpaceX, 2차 주식 매각 후 기업 가치 1 천 5백억 불에 근접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The Real Fed Debate This Month: What Would Prompt a Rate Hike This Fall

올가을 금리 인상 촉발 요인

- 연준의 많은 관계자들이 금리 0.25%p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. 7월 회의에서 올 가을 금리 인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.
- 인플레이가 둔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. 5월 이후 고용과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.
- 지난달 연준은 연방기금 금리를 5%에서 5.25% 사이로 동결했다. 이는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동결한 것이다.
-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 지수는 6월에 전월 대비 0.2% 미만 상승했다. 이는 2년 만에 가장 작은 월간 상승률이다. 물가는 월 0.4%로 훨씬 빠르게 상승했다.
- 대부분의 관리들은 지난 6월 회의에서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인플레이 압력이 완화 된다면 올해 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.

WSJ 기사

CNBC: June wholesale prices rise less than expected in another encouraging inflation report**6월 도매 물가 “예상보다 적게 상승했다”**

-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목요일 미 노동부가 발표했다. 이는 인플레이가 둔화 되고 있다는 신호이다.
- 최종 수요에 대한 PPI는 0.1% 상승했다.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인 0.2%보다 낮은 수치이다.
- CPI는 전년 대비 3% 상승에 그쳤다. 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.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도매 생산자 수치는 소비자 인플레이보다 빠르게 하락했다. 5월의 PPI는 0.4% 하락했다. 변동성이 큰 식품, 에너지, 무역 서비스를 제외하면 변동이 없었다.

CNBC 기사

[서부 항만]**CNBC: Canadian West Coast ports strike is over, but it will take weeks for supply chain to recover****캐나다 서부 항만 파업 끝났지만, 공급망 회복에는 몇 주 걸릴 것**

- 캐나다 서부 항만 파업은 노조와 항만 소유주 양측이 협상안을 수락하면서 끝났다.
- ILWU 캐나다 노조원들은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공급망 회복에는 몇 주 걸릴 것으로 보인다.
- 항구 생산량 감소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나, 2주 간의 파업으로 인한 혼잡은 항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. 또한 효율성을 회복하려면 몇 주 걸릴 것이다.
- 선박의 입항과 하역, 레일에 적재된 컨테이너의 대기 시간 등을 합치면 미국 도착 지연 시간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까지 늘어날 수 있다.

CNBC 기사

[뉴욕 소식]**NYT: Almost \$80 Billion Needed for Repairs to New York City's Public Housing****뉴욕시 “공공 주택 수리에 800억 불 필요하다”**

- 뉴욕시 공공 주택 기관은 노후화된 시설, 엘리베이터 결함 등의 문제를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데 약 800억 불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
- 이 금액은 2017년 대비 70% 이상 증가한 것이다. 동시에 인플레이와 건설 비용 상승을 크게 반영한 것이다.
- 800억 불 중 600억 불은 보일러와 난방 시스템 등 향후 5년 내에 교체해야 할 시설과 관련된 것이다. 2006년 대비 약 6배 올랐다.
- NYCHA 주택은 주거비가 비싼 뉴욕시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. 임대료는 거주자 소득의 30%로 제한되며, 평균 임대료는 월 560불 미만이다.
- NYCHA 주택은 인기가 많아 올해 약 27만 5천 가구가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다.

NYT 기사

[부동산]

CNN Business: Mortgage rates jump higher, closing in on 7% 모기지 금리 상승... 7%에 근접

- 모기지 금리가 이번 주에 상승하여 7%에 근접했다. 이는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.
-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는 7월 둘째주에 평균 6.96%였다. 이는 전 주 6.81% 보다 상승한 수치이다. 1년 전에는 5.51%였다.
- 모기지 금리는 작년 한 해 동안 한 주를 제외하고 모두 5% 이상을 유지했으며, 11월에는 7.08%까지 치솟기도 했다. 금리는 계속 하락하여 1분기 내내 6.5% 미만이었다.
- 5월 말 부채 한도 교착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,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를 보여줘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다.

CNN Business 기사

[글로벌 경제]

CNBC: Strategist David Roche says we'll avoid a global recession, central banks will 'change the goalposts' 전략가 David Roche “글로벌 경기 침체 피할 것”

- 전략가인 David Roche는 “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고, 중앙 은행은 인플레이 대비 방식을 바꿔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중앙 은행은 지난 18개월 동안 통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강화해 왔다. 올해 말에는 탄력적인 노동 시장과 경제 활동으로 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.

- 이로 인해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주요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. 추가 금리 인상 때문이다.
- 하지만 일부는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수요 파괴와 실업률을 위해 경기 침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.

CNBC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CNBC: Hybrid work is the new normal, as companies rethink work habits and office and retail space

하이브리드 근무 새로운 표준 되다

- 하이브리드 근무가 최적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. McKinsey 보고서에 따르면 사무실 출근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30% 낮은 수준으로 안정 되었다.
- 이러한 유연성은 오피스 공간에 대한 수요를 줄였다. McKinsey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2019년보다 최대 20%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.
- 오피스 공간 수요 감소로 인해 기업들은 부동산 활용 방법을 재고하고 있다. 직장인들이 재택 근무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팀워크와 생산성 향상이다.
- 한편 쇼핑 패턴도 팬데믹으로 인해 변했다. 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자가 오피스 근처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.
- 특히 사무실 밀집 지역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. 유동 인구의 지출 감소와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매장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.
- McKinsey의 Jan Mischke은 “소매업체는 운영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”며 “2030년 소매 상가 공간 수요는 2019년보다 더 낮아질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CNBC 기사

WSJ: ChatGPT Comes Under Investigation by Federal Trade Commission

ChatGPT, 연방거래위원회 조사 받다

- 미국 연방거래위원회(Federal Trade Commission)는 ChatGPT가 허위 정보를 게시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.
- 이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인간과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앱에게 잠재적으로 법적 위협이 될 수 있다.

- 목요일 FTC는 OpenAI가 “소비자 피해 위험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관행에 관여했는가에 대한 여부”에 초점을 맞춰 ChatGPT를 조사하고 있음을 밝혔다.

WSJ 기사

Bloomberg: Tesla Starts Selling Chinese-Made Model Y in Korea for \$44,000

Tesla “한국서 중국산 모델 Y 4만 4천 불에 판매 시작”

- 테슬라가 중국산 SUV 모델 Y를 한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.
- 테슬라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격은 4만 4천 불이다.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서울에서는 약 3천 7백, 일부 도시에서는 3천 만원까지 가격이 인하 된다.
- 이전까지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델 Y는 두 가지 뿐이었다. 작년 기준 가격은 각각 8천, 6천 2백 만원이었다.
-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자동차의 약 6.2%가 배터리 구동, 하이브리드 및 수소차를 포함한 클린(clean) 차량이다.
- 지난해 한국 클린카 판매량은 전년 대비 37.2% 증가했으며, 이 중 전기차가 전체의 약 34%를 차지 했다.

Bloomberg 기사

CNBC: Elon Musk’s SpaceX nears \$150 billion valuation after secondary share sale

SpaceX, 2차 주식 매각 후 기업 가치 1 천 5백억 불에 근접

- SpaceX의 기업 가치가 1천 5백억 불에 근접했다. 기존 투자자들의 주식 매각 때문이다.
- SpaceX는 신규 및 기존 투자자들과 내부자들로부터 최대 7억 5천만 불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합의 했다. 이 회사의 주가는 주당 81불이다. 이는 주당 77불에서 약 5% 상승한 것이다.

CNBC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'미 금리 고점 근접' 기대에 세계 채권값 이틀째 상승

2년만기 미 국채 금리, 14bp 내린 4.61%...영 국채 단기물도 30bp 하락

미국에서 인플레이션(물가 상승) 둔화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 행진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글로벌 채권 금리가 하락(채권값 상승)하는 등 랠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.

13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리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14bp(1bp=0.01%포인트) 하락한 4.61%를 기록하는 등 단기물이 상승세를 주도했다.

영국 국채 단기물도 지난 이틀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인 30bp나 하락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